



‘샤블리 지역 대표 와이너리 도멘 롱 드파키’

도멘 롱 드파키 샤블리

Domaine Long-Depaquit Chablis

지역	프랑스 > 부르고뉴 > 샤블리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2.88%	용량	750ml
등급	AOC	시음 적정 온도	7-10℃
테이스팅 노트	절인 레몬, 섬세한 흰 꽃의 우아하고 복합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뛰어난 구조감과 생동감이 느껴지며, 짹짹한 미네랄 뉘앙스의 피니쉬로 마무리된다		



제품설명



샤블리는 프랑스의 3대 와인산지 가운데 하나인 부르고뉴 지방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부르고뉴 최고의 와인산지인 '꼬뜨 도르 (황금의 언덕)'에 빚대어 사람들은 '부르고뉴의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샤블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오래된 점토성 석회암인 이회토는 최고의 샤르도네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특히 알베르 비쇼가 소유한 도멘 롱 드파키는 우수한 품질의 샤블리 와인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버그하운드 Burghound.com 89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89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0점

와이너리



1831년 Bernard Bichot에 의해 설립되어 가족 소유로 경영되어 온 알베르 비쇼(Albert Bichot)는 현재 6대째 자손인 알베릭 비쇼(Alberic Bichot)가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부르고뉴 와인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알베르 비쇼는 부르고뉴 지역 4위의 업체이다.
 매출의 70%를 전 세계 10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고뉴 지역의 수 많은 와인들을 우수한 품질로 생산해내고 있는 노하우에 기반한다
 알베르 비쇼는 총 6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6명의 와인메이커가 각각 다른 와이너리에서 각각의 페루아를 고려하여 양조하며, 이것은 알베르 비쇼만의 특별한 철학이다
 알베르 비쇼는 스웨덴 왕실 공식 와인 공급업체이며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서빙 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